



미국 연금시장 경쟁 확대 및 동향

최 원 선임연구원

■ 미국 연금시장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private equity firm)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시장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¹⁾

- 미국의 연금 상품 공급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가 축소된 안정적인 상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새로운 공급자들의 연금시장 진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M&A 등을 통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연금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과감한 연금 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연금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앞으로 공시규정과 자본규제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통해 시작된 연금 상품 공급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연금 상품 공급자들은 기술적인 진보를 통하여 비용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높아진 비용 효율성은 연금 상품의 가격 경쟁을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기술 발전은 주로 연금 공급자들의 내부 운용시스템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왔음.
-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확대와 같은 기술적인 진보는 연금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서 비용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기술적인 진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공급자와 판매자는 비용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연금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것임.

1) 언스트앤영(EY)은 “The annuity landscape(2014, 11)”를 통하여, 미국 연금시장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심 있게 살펴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미국 연금시장의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음.

-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금리 상승 전망으로 변액연금(variable annuities)의 약세와 정액연금(fixed annuities)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상품 개발 시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함.
 - 정액연금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예상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상품 경쟁력이 상승함.
- 최근 은퇴 이후의 소득에 관심이 높아진 데다 공급자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도 이어져 고연령 거치연금(deferred income annuities)²⁾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고연령 거치연금의 경우 새로운 저축수단으로의 역할이 부각되는 데다 변액연금 등에 비해 상품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음.

■ 연금 상품의 공급과 판매에 있어 연금 상품 공급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먼저 연금 공급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요구됨.
- 소비자와 판매채널이 더욱 단순하고 표준화된 연금 상품을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에는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보장내용과 가격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품이 표준화되고 가격 차별성이 줄어들에 따라 장기적인 자산운용 성과와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시될 것임.
- 연금시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모델링(modeling) 기법과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능력을 배양해야 함.

(EY 등)

2)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연기하여 고연령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함.